



## 진귀한 "메티에 라르" 수공예 기법으로 페르디낭 호들러의 작품을 기념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에나멜 리베르소 워치

2018년을 맞이해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는 세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워치를 통해 그랑 메종이 사랑하는 진귀한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수공예 장식 예술을 선보입니다. 세 가지 타임피스 모두 놀랄 만큼 섬세한 인그레이빙과 에나멜링으로 스위스 화가 페르디낭 호들러(Ferdinand Hodler)의 작품을 시계의 앞뒷면에 재현해냅니다.

호들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은 아티스트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산과 호수의 풍경을 케이스에 담아냅니다. 특유의 아르데코 스타일을 간직한 리베르소 워치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에나멜 미니어처를 위한 완벽한 캔버스가 되어 호들러의 작품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각각 8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됩니다.

### 페르디낭 호들러의 작품 세계를 기념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진귀한 "메티에 라르" 수공예 장식 예술

시계 앞면은 매혹적인 기요세 패턴이 돋보입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기요세 장인이 다이얼 장식에 사용한 도구는 백 년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계로, 기계를 다루는 데에도 상당한 전문 지식과 수년간의 노하우를 필요로 합니다. 다이얼의 작은 마름모꼴 패턴은 마치 메탈을 엮은 듯한 착시 효과를 일으켜 고급스럽고도 섬세한 디테일을 표현합니다. 인그레이빙 패턴 위로는 반투명 에나멜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에나멜 컬러는 반대편의 미니어처 페인팅 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시계 뒷면에도 수작업 인그레이빙이 이어지며 섬세한 라인들은 에나멜 페인팅을 위한 우아한 프레임이 됩니다. 각 모델마다 각기 다른 고유한 프레임을 연출하여 호들러의 미니어처 페인팅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세 줄의 가드룬 장식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리베르소 워치의 상징을 부각시켜 줍니다.

### 그랑 퓨 에나멜의 예술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시리즈는 스위스 미술계의 거장 페르디낭 호들러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에나멜 장인들은 호들러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웅장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최대한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타임피스 하나당 50시간이 넘는 섬세한 공정을 거쳐 시계를 완성했습니다.

각 시계의 미니어처 페인팅은 예거 르쿨트르 에나멜 장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도전과제들을 짐작케 합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3cm<sup>2</sup>의 리베르소 다이얼 양면에 거대한 원작 페인팅을 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제네바 호수와 몽블랑(Lake Geneva with Mont Blanc in the Morning Light), 1918년(74 x 150cm)**

이 오일 캔버스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핑크과 골드 톤의 아침 햇살을 똑같이 재현하는 일로, 이를 구현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시계 앞면에는 미니어처 페인팅 컬러들과 조화를 이루는 밝고 부드러운 톤의 그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하늘과 호수의 독특한 빛깔은 수많은 점들로 형상화되어 제네바 호수와 몽블랑 산의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해 뜨기 전 툰 호수와 대칭 반사(Lake Thun with Symmetric Reflections Before Sunrise), 1904년(89 x 100cm)**

이 작품은 보다 밝은 느낌의 풍경을 선보입니다. 장인들은 호수를 중심으로 펼쳐진 산의 신비로운 블루 컬러를 재현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화가는 투명한 호수에 비치는 돌을 통해 그 앞에 펼쳐진 그린 톤의 맑은 물을 놀라운 표현력으로 그려냅니다. 에나멜 장인은 이 아름다운 색채에서 영감을 얻어 파인 그린 컬러의 에나멜로 앞면 다이얼을 장식하고 페르디낭 호들러가 탐구한 대칭의 미학을 에나멜 장식을 통해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툰 호수, 대칭 반사(Lake Thun, Symmetric Reflection) 1909년(67.5 x 92cm)**

세 번째 그림은 늦은 오후 햇살을 받아 일렁이는 호수와 투명한 물에 반사된 알프스 산의 정경을 묘사합니다. 거울 효과와 블루 화이트 톤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주 호수(Lake de Joux)의 고요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기묘세 패턴 위에는 라이트 스카이 블루 톤의 반투명한 에나멜이 코팅되었습니다.

**거장의 작품을 담은 아르데코의 아이콘**

상징적인 아르데코 스타일과 각면 처리된 아플리케 아워 마커, 도피네 핸즈, 다이얼 중앙의 레일트랙 미닛 서클을 탑재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은 진귀한 "메리테 라르" 수공예 에나멜 장인이 완성한 하나의 정교하고 독창적인 예술 작품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에나멜 리베르소 워치 시리즈의 하나이자 페르디낭 호들러 한정 에디션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이 세 가지 피스는 시계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미술 애호가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은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진귀한 "메티에 라르" 수공예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에 대한 그랑 메종의 열정을 표현합니다.



## 2018년, 스위스 화가 페르디낭 호들러(1853~1918년) 서거 100주년 기념

올해는 1918년 제네바에서 세상을 떠난 페르디낭 호들러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스위스의 주요 미술관을 비롯한 미술계에서는 상징주의 회화의 거장이자 스위스를 대표하는 화가인 호들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헌정 에디션을 통해 스위스 화가를 추모합니다. 스위스 호수와 산의 정경을 묘사한 그의 작품들은 1833년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가 탄생한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페르디낭 호들러는 작품 속의 풍경들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도 메종과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의 모든 작품들은 분명하고도 간결한 표현 방식을 통해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을 드러냅니다.

---

### 예거 르쿨트르의 세계

예거 르쿨트르는 1833년 스위스 산맥의 발레 드 주 계곡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창립 이후부터 모든 시계를 시계 명장들이 무브먼트에서 케이스까지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만들어 조립합니다. 여기에는 독창성과 의지, 성실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갈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입니다.

---

[www.jaeger-lecoultre.com](http://www.jaeger-lecoultre.com)